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출발선 아나

보도시점 2024. 6. 11.(화) 11:00 < 6.12.(수) 조간 > 배포 2024. 6. 11.(화)

# 베트남 국가 싱크탱크, 베트남 사회과학원 원장과 경제협력 논의

- 교역·투자 확대, 공급망, 탄소중립 등 한-베 경제협력 방안 의견 교환
-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모색을 위해 정책 연구기관 간 교류도 확대키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.11.(화) 서울 롯데호텔에서 판 치 히에우(Phan chi Hieu) 베트남 사회과학원 원장을 만나 교역·투자 확대, 핵심광물 공급망, 탄소중립 등 한-베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한-베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 교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베트남 사회과학원(VASS: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)은 베트남 총리 산하의 정책 연구소로 동북아연구소 등을 비롯한 35개 산하 연구원을 총괄하고 있는 베트남의 국가주도 싱크탱크이다.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베트남 사회과학원이 그동안 활발한 한-베 학술 교류,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. 특히, 경제협력 측면에서 '22년 양국 정상이 선언한 「2030년 교역액 1,500억 불 목표」 달성을 위해 양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정책연구기관 간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

판 치 히에우 원장은 '22년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관계가 「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」로 격상된 점을 평가하며,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30년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베트남의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향후 한-베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.

끝으로 정 본부장은 베트남과의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전체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, 이를 위해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

| 담당 부서 | 통상협력국<br>아주통상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민혜 (044-203-5710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형진 (044-203-5714) |

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